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통합당 → 국민의힘 당명변경 개정 의결

미래통합당이 2일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으로 바꿨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7개월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대면 형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변경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새 당명인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 동시에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라는 의지도 담았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등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이날 전국위에서 새 정강·정책도 의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새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 도입,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TV 수신료 폐지 등 새 정강·정책은 당 의원총회와 전날(1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제외한 뒤 이날(2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했다. 당 내부에서 제기한 비판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서 검토 후 공식 사용 ‘미래통합당’ 변경 후 7개월만

##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등 당명에 3가지 의미 담아 선정

통합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교체로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13일~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1만6941건에 달하는 당명 제안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안된 단어 ‘국민’을 발췌해 새 당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당명은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자유당(1990년), 신한국당(1995년), 한나라당(1997년), 새누리당(2012년)을 거쳐 지난 19대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2017년)으로 바꾼 뒤 최근 미래통합당(2020년)으로 당명이 정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것까지 지난 30년간 총 6번 당명을 바꾼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사 당명 여부에 대해 검토 받은 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사용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당명 등록을 완료해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존경하는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의 힘으로 굳건하게 일어나, 민생정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국민과 합

이와 관련해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전날(1일)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지방의원 통폐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행정 단계 개편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너무 앞서가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밖에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등 당내 새 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마련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의결했다.

한편, 당명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새 정강·정책, 새 강령 개정안 등은 이날 통합당 전국위원 578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강 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데 큰 기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당은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 나눠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이제 (당명 개정과 새 강령 등으로 변화해)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에 사과”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혹관련 특별한 이익 얻지 않았다”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지적되자 이흥구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2002~2005년 주택 매매 당시 다운 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 질문에 “(2005년 당시 장인 집에) 전입신고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은 맞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신고액은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등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족과 다른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자녀 학교 입학이나 주택 청약 문제 등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게 있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혹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은 얻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념편향’ 논란도 화두가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호 판사라는 경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 농진청, 찻잎 유효성분 미용·식품 가공기술 개발

## 전남대학교와 공동연구 진행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차나무잎(찻잎)에 풍부한 유효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를 미용 제품과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성분은 차나무 잎에 들어있는 총 4종류의 카테킨 중 60%를 차지한다. 항산화 기능은 비타민 C 보다 10~20배 우수하고, 지방 분해를 유도해 체중 조절 효과를 낸다. 또 피부 주름 개선, 피부 보호 효과도 크다.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을 이용한 다이어트용 음료. /농진청

하지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쓴맛이 강하며, 쉽게 갈색으로 변하는 점 때문에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한용수 기자 hys@

# 산업부-인도네시아, 기술규제협력 강화

##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

화상회의에는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

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2억 6000만명으로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지난해 76억 5000만달러로 제7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자동차 강관용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철폐됐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 기술장벽은 강화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링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한용수 기자

# ‘갯게 인공증식’ 성공 해수부, 500마리 방류

해양수산부는 인공 증식에 성공한 해양보호생물 갯게 500마리를 오는 4일 충남 서천 월호리 갯벌에 방류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 군산대학교(교수 김형섭) 연구팀에 갯게의 개체수 회복을 위한 인공증식 연구용역을 위탁, 연구팀은 2018년 처음으로 갯게 인공 증식에 성공했다. 이후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남해안에 어린 갯게 1500마리를 시범 방류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군산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3월 인공 증식을 통해 부화에 성공한 갯게 1000마리를 5개월 동안 성장시켜 500마리는 방류하고, 나머지 500마리를 활용해 어린 갯게의 성장률 증가 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